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계획안 마련하라”

범시도민대책위원회
내일 도총환 문체부장관 면담
“민평원 증·개축 과정서
‘5월 흔적’ 상당부분 훼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5·18 정신의 현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가 포함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옛 전남도청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24일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도총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면담 때 옛 도청 복원과 관련 예산 확보 그리고 복원 계획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옛 도청 복원을 요구하기로 한 것은 본관·별관·회의실, 옛 전남경찰청 본관·민원실·상무관을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5월 항쟁 당시의 원형이 많이 훼손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민원실은 지하 방수 공사로 바닥이 높아졌고, 별관은 부분 철거 후 철골구조물이 설치됐으며 내부 계단과 복도만 남아 있는 상태. 또 경찰청과 경찰청 민원실은 내부 전체가 변경된 채 전시물이 설치됐고, 상무관은 민주광장과 상무관 사이에 금남지하사가 주차장 진출입로가 설치됐다.

이에 대책위는 “5월 항쟁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이 훼손됐다”며 도청 본관에서 별관과 회의실을 잇는 통로를 모두 복원하고, 전당 방문자센터를 철거 이전하는 등 시민군 활동에 기초한 공간 복원 방안도 장관 면담 때 제시할 예정이다.

옛 전남도청 본관은 항쟁 당시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 회의실로 사용됐고 민원실은 시민군이 밥을 먹고 지하에 무기를 보관하기도 했던 곳이다. 민원실은 특히,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의 퇴로로 쓰였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24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앞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옛 도청 원형 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옛 전남도청 현 상황 및 복원(안)

공간	80년 5월 상황	현 상황		복원(안)
		민평원	훼손상황	
본관	시민군 상황실, 방송실, 회의공간	4관	• 내부 계단, 복도만 남아있음 • 상황실, 방송실 엘리베이터 설치 • 회의실(민원실)과의 연결통로 철거	• 본관, 회의실(민원실) 2층 연결통로 복원 • 상황실, 방송실 복원 • 내부공간 복원
회의실(민원실)	시민군 식사 장소, 지하 무기고 활용 5월 27일 새벽 시민군 퇴로	3관	• 지하층 방수공사: 바닥이 높아짐	• 본관과 별관 연결 • 내부공간 복원
별관	시민군 활동 장소(보초장소)	문화교류 협력센터	• 별관부분 철거, 철골구조물 설치 • 내부 계단과 복도만 남음	• 방문자 센터 철거 • LED 철골펜스 철거 • 내부공간 복원
경찰청	희생자 수습 장소 희생자 신원확인 장소	1관	• 내부 100%변형 되어 전시물 설치 • 본관과 경찰청 사이 방문자센터 설치 • 외부 LED 철골펜스 설치	• 내·외부공간 복원
경찰청 민원실	시민군 동선	2관	• 내부 100%변형 되어 전시물 설치	• 내·외부공간 복원
상무관	신원 확인된 희생자 안치장소	5관	• 민주광장과 상무관 사이 금남지하사가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	• 입구 평지화

또 별관에서는 시민군이 보초를 했고, 경찰청은 희생자를 수습하거나 신원을 확인한 장소다. 관이 보관됐던 항쟁 당시의 사진으로 국내외에서 유명한 상무관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를 안치했던 곳이다. 앞서 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11월 개

관했지만, 민주평화교류원 원형복원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현재까지 전면 개관하지 못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구속자회·부상자회)는 지난해 초부터 옛 도청 건물 원형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대책위는 최근 옛 도청 자료조사 및 수집 전담반(TF)을 꾸려 시민군 활동기록과 관련자 구술, 건물 원형 배치도 등 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해남 공룡발자국 미생물로 친환경 나노물질 만든다

GIST, 리튬이온 이차전지 전극 물질 활용 발견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허호길 지구환경공학부 교수와 포항방사광 가속기연구소의 김민규 박사가 ‘슈와넬라(Shewanella sp. HN-41)’라고 불리는 미생물을 활용해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전극 물질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이 해남의 공룡 발자국 퇴적층에서 발견한 슈와넬라 미생물은 과거 사약으로도 사용될 정도의 독성이 높은 비소를 황화비소라는 노란색 침전물로 전환할 수 있다.

침전된 물질은 수 마이크로미터 길이의 나노 튜브 성상의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나노물질을 합성하려면 높은 온도나 특수 장비들이 필요하지만, 미생물을 이용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상온에서 저비용에 친환경적 과정을 거쳐 손쉽게 나노물질을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이전에 보고된 미생물로 만든 황화비소 나노물질의 독특한 구조적 특징에 주목해 리튬이온전지 물질로의 활용성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됐다. 현재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음극 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흑연은 탄소로 이뤄진 층상구조에 리튬이온이 저장

되는 구조이다. 이와 유사하게 미생물이 만든 물질인 황화비소(Realgar, As4S4)는 비소 원자 4개와 황 원자 4개가 결합한 새장 모양(Cage-like)의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된 분자들 사이에 느슨하게 서로 결합한 공간에 리튬이온이 자유롭게 끼어들어 광과의 결합을 통해 저장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포항방사광가속기 연구소에서 실시간 구조분석을 통해 황화비소 나노물질이 리튬이온과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특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자들이 하나의 최소 단일 전극 물질인 황화비소의 독특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리튬이온의 연속적인 탈착 과정 중에도 안정적인 분자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리튬이온 이차전지에서 부피 팽창으로 물질들이 산산이 부서지지만, 미생물을 이용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상온에서 저비용에 친환경적 과정을 거쳐 손쉽게 나노물질을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허호길 교수가 주도하고 김민규(공동 교신저자) 박사과 김태양(제1저자) 박사과정생이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적인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서스테이너블 시스템즈’(Advanced Sustainable Systems) 2017년 7월 10일 표지 논문(Cover Picture)으로 온라인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北 목록부담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에도 무반응

통일부는 24일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에 북한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적십자사가 북측에 8월 1일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했던 데 대해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겠다”며 “북측도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조속히 호응을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군사분계선상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된 김에 놓인 탈북민 일가족 5명이 최근 중국 선양에서 집단 자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백 대변인은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관계 여부 등에 대해 지금 유관부처와 함께 파악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출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도출 결과 그대로 수용”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

에 국한하며,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위원장에는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노동법과 산업재해 분야에 조예가 깊고,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회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경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

(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정됐고, 조사회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자마자 첫 회의를 열어 첫 달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웅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1,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웅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부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암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